

# 레미콘 산업동향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조사과〉

## 1. 1997년 3/4분기 건설경제동향

통상산업부가 발표한 산업경제동향에 따르면 97년 3/4분기중 우리경제는 민간소비와 고정투자등 내수가 계속 부진하였으나 수출이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6.3%의 성장률(실질GDP)을 기록하였다.

산업부분별 생산은 농림어업(0.2%)과 건설업(2.9%)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8.1%)의 수출호조와 서비스업(7.2%)의 꾸준한 성장으로 신장세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9.4%로 지난 5월이후 70%대를 지속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3/4분기중 건설투자는 전력, 공항,

도로 등에 대한 투자는 크게 확대되었으나 아파트, 다세대주택, 공장등 건물건설이 감소하여 총 2.1%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업은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민간부문의 주거용 및 비주거용건축의 약세로 전년 동기 대비 2.9%의 저조한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민간건설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건설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주거용 건물건설이 분양저조 및 부도업체 증가 등으로 1.5%증가에 머물렀으며, 정부건설 또한 국도 및 지방도의 확·포장 공사가 늘어났으나 지하철건설등이 부진하여 2.7%증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1] 건설업의 성장률 및 건설투자의 증가율 추이

(단 위 : %)

구분	기간	96년 <sup>p</sup>				년간	97년 <sup>p</sup>		
		1/4	2/4	3/4	4/4		1/4	2/4	3/4
건설업		10.4	6.7	7.5	3.7	6.7	-1.0	1.1	2.9
민간 건설	합 계	8.5	2.6	2.9	2.6	3.9	-1.9	0.2	1.5
	주거용	6.9	-1.7	3.3	-6.4	0.4	-8.1	-1.8	-7.9
	비주거용	3.8	-5.1	-9.5	1.4	-2.4	-3.6	-4.7	0.6
	토 목	25.6	21.2	17.2	15.2	18.7	16.5	6.7	17.3
정부건설		27.5	18.4	19.6	4.3	14.3	0.0	1.4	2.7
건설투자		11.2	5.6	7.1	2.8	6.3	-0.9	1.1	2.1
건물건설투자		6.4	-1.3	-0.4	-3.7	0.2	-5.0	-1.8	-3.4
기타건설투자		23.8	17.1	19.4	10.0	16.1	8.4	5.2	9.7

자료 : 한국은행 '1997년도 3/4분기 국내총생산(잠정)' 참조

### 1) 건설공사 계약액 동향

건설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7년 9월 말 현재 건설수주액의 누계는 총 56조9천54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1.5% 증가하였다.

이중 공공부문 수주액은 21조6천15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8% 증가하였는데 이를 공종별로 살펴보면 건축은 주거용 공공주택이 전년동기대비 37.3% 감소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였으나 토목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 수주액은 전년동기대비 27.5% 증가한 35조3천383억원으로 집계되었다. 공종별로는 토목은 거시경제의 침체로 인한 민간 설비투자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가덕도신항만, 대전-논산간 고속도로, 봉화산터널등 민자유치사업이 활기를 띠어 전년동기대비 8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간건축부문의 경우 주거용이 전년 9월말 누계보다 19.5%, 비주거용이 23.4% 각각 증가 한데 힘입어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21.2% 증가하였다.

### 2) 건축허가면적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건축허가동향에 따르면 97년 10월말까지 허가된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은 총 89,794천㎡로 전년동기대비 3.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월별로 살펴보면 [표 2]에서와 같이 7월에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전년 5,711천㎡ 대비 10.0%감소한 5,141천㎡가 허가되었으며 공업용 건축허가면적은 전반적인 경기하강의 영향으로 공장지의 신, 증설과 설비투자가 부진했던 영향으로 전년대비 22.9% 감소한 762천㎡허가되는 부진을 보여 7월중 총 허가면적은 9,277천㎡로 전년동기 대비 17.5% 감소하였다.

8월에는 공업용 및 기타용도의 허가면적이 감소하였으나 주거용(12.9%)과 상업용(15.9%)이 증가 한데 기인하여 전년동기 대비 4.0%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9월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공업용 및 주거용, 상업용, 모두 큰 감소세를 보여 전년대비 26.5% 감소한 2,364천㎡가 허가되었다.

(표 2) 97년도 3/4분기 건축허가면적 현황

(단 위 : 천㎡, %)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0월		
					97년	96년	증감율
전 체	9,277 (-17.5)	7,875 (4.0)	2,364 (-26.5)	10,209 (12.7)	89,794	92,740	-3.2
주거용	5,141 (-10.0)	3,836 (12.9)	4,013 (-20.9)	5,803 (23.2)	48,054	48,641	-1.2
상업용	2,364 (-15.8)	2,387 (15.9)	1,795 (-26.1)	2,477 (31.4)	22,828	22,497	1.5
공업용	762 (-22.9)	743 (-31.0)	643 (-53.4)	788 (-28.5)	7,759	10,377	-25.2
기 타	1,010 (-41.9)	909 (-12.5)	1,151 (-21.1)	1,141 (-16.4)	11,153	11,225	-0.6

자료 : 건설교통부, ( )는 전년동기 증감률임.

## 2. 1997년 3/4분기 레미콘 수급동향

1997년도 3/4분기 레미콘은 [표 3]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541개 업체 701개 공장에서 33,048,897m<sup>3</sup>을 기록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 33,637,310m<sup>3</sup>보다 1.7%감소하였고 9월까지의 누계로는 전년 같은 기간의 90,147,214m<sup>3</sup> 대비 4.9% 증가한 94,539,664m<sup>3</sup>를 출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3/4분기에 레미콘의 출하 감소가 나타나게 된 것은 전반적인 민간건축의 부진과 9월 추석연휴 등으로 현장에서 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며 특히 관수부문에 비해 민수부문의 감소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레미콘 출하 증가율이 감소하거나 정체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수요별로 살펴보면 민수가 전년 28,239,838m<sup>3</sup>대비 4.3% 감소한 27,011,637m<sup>3</sup>를 생산하였으며, 관수는 총 6,037,260m<sup>3</sup>를 생산하여 전년 5,397,472m<sup>3</sup>대비 11.9%증가하여 관수용 레미콘이 전 분기에 이어 전체 레미콘산업경기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하고 대형 건설업체 및 대기업들의 부도사태로 인한 일시적인 공사중단, 장기적인 미분양주택의 적체 등 민간건설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관수용 레미콘이 출하되는 공공건설공사에는 도로, 교량, 항만 등 SOC시설을 비롯하여 환경관련 시설, 강원 및 경기일부지역의 수해복구사업의 마무리작업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관수에 대한 민수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강원지역이 농로보수, 교량, 제방 보수 및 신축 등 수해복구 마무리 사업현장과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도로공사 등에 관수용 레미콘이 출하되었고 민수는 춘천을 비롯한 도내 중소도시에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및 홍천의 조선맥주공장 신축현장과 수해지역의 재 침수 우려로 집단이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철원지역의 민간주택공사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총 레미콘 출하량은 전년 1,810,776m<sup>3</sup>대비 8.7% 증가한

[표 3] 전국 레미콘생산업체 현황

(1997년 9월30일 기준)

지역	구분	업체 수	공장 수	생산능력(B/P)		믹서트럭(R/T) 보유대수(대)
				기 수	천m <sup>3</sup> /년	
서울·경인		104	154	254	91,900	7,479
강원		66	74	79	20,640	1,167
충북		43	45	54	14,980	945
대전·충남		68	85	117	35,548	2,019
전북		44	49	66	20,520	1,123
광주·전남		58	74	92	29,160	1,894
대구·경북		89	100	129	40,668	2,352
부산·경남		93	105	150	47,248	3,156
제주		15	15	19	5,940	301
합계		541	701	960	306,604	20,436

주) 1. 전국 업체수는 지역 중복을 피한 수치임.  
2. 연간 생산능력은 년 250일, 1일 8시간 가동 기준임.

1,968,224m<sup>3</sup>를 출하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레미콘생산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제주지역은 관광위락시설 및 상업용 건물 등을 중심으로 레미콘 출하가 이루어져 전년 434,594m<sup>3</sup>대비 5.2%증가한 457,359

m<sup>3</sup>를 출하하였다. 그러나 충북지역은 두진중 합건설, 대원, 세원건설등 도내 중견건설업체의 연쇄도산 및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년 1,553,209m<sup>3</sup>대비 0.4% 증가한 1,559,145m<sup>3</sup>를 출하하는데 그쳤다.

(표 4) 97년 3/4분기 지역별 레미콘 출하실적

(단위 : m<sup>3</sup>, %)

지역	수요별	1997	1996	증감율
서울·경인	민수	11,132,711	11,218,166	-0.8
	관수	1,772,524	1,462,441	21.2
	계	12,905,235	12,680,607	1.8
강원	민수	1,438,277	1,409,584	2.0
	관수	529,947	401,192	32.1
	계	1,968,224	1,810,776	8.7
충북	민수	1,289,136	1,291,265	-0.2
	관수	270,009	261,944	3.1
	계	1,559,145	1,553,209	0.4
대전·충남	민수	2,819,721	2,820,083	0.0
	관수	642,241	619,909	3.6
	계	3,461,962	3,439,992	0.6
전북	민수	1,221,588	1,275,436	-4.2
	관수	371,197	416,237	-10.8
	계	1,592,785	1,691,673	-5.8
광주·전남	민수	2,078,034	2,440,961	-14.9
	관수	607,900	501,479	21.2
	계	2,685,934	2,942,440	-8.7
대구·경북	민수	2,964,130	3,363,251	-11.9
	관수	742,215	794,157	-6.5
	계	3,706,345	4,157,408	-10.8
부산·경남	민수	3,784,365	4,117,768	-8.1
	관수	927,543	808,843	14.7
	계	4,711,908	4,926,611	-4.4
제주	민수	283,675	303,324	-6.5
	관수	173,684	131,270	32.3
	계	457,359	434,594	5.2
합계	민수	27,011,637	28,239,838	-4.3
	관수	6,037,260	5,397,472	11.9
	계	33,048,897	33,637,310	-1.7

대구·경북지역은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와 일우건설, 일광토건등 지역 중견건설업체의 잇단 도산으로 건설업의 부도가 전 분기에 비해 크게 늘어나면서 레미콘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쳐 전년 같은 기간의 4,157,408m<sup>3</sup>대비 10.8% 감소한 3,706,345m<sup>3</sup>를 출하하는데 그쳤다.

이밖에 부산·경남지역 4,711,908m<sup>3</sup>(-4.4%), 전북지역 1,592,785m<sup>3</sup>(-5.8%), 광주·전남지역 2,685,934m<sup>3</sup>(-8.7%)를 출하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3/4분기 레미콘 산업의 특징은 전분기에 이어 민간건설경기의 장기적인 침체로 인한 민수용 레미콘의 생산증가를 저조와 관수용 레미콘의 상대적 호조에 있다고 하겠다.

### 3. 1998년도 건설경기 전망 및 건자재 수요전망

#### 1) 98년도 경제전망

기아등 일부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금융기관의 대규모 부실채권 증가등 실물부문의 부진과 금융부문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 및 외환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하여 정부는 IMF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하여 우리경제는 향후 IMF에서 제시한 경제 프로그램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이행 여부에 따라 주요 경제지표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재정경제원에서 발표한 IMF자금지원 합의 내용에 따르면 표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경상수지 적자를 98년, 99년에 1%이내에서, 물가는 5%이내에서 유지하고 성장률은 98년에는 약 3%로, 99년에는 잠재성장을 수준으로 회복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IMF프로그램에 따른 구조조정이 성공할 경우 98년 이후 점차 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들어 중기적으로 6.5%정도의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의 98년도 경제는 심각한 내수 위축으로 대외부문의 성장 기여에도 불구하고 4% 이하의 성장률이 전망되나 수입감소가 크게 나타나면서 경상수지는 균형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소비는 실업증가와 심각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민간소비 증가는 3%대의 지극히 저조한 수준으로 전망되며, 투자는 공공부문 투자의 심각한 위축으로 건설투자가 5.6% 내외의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비투자도 5.4% 내외의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물가는 긴축을 위한 공공요금 및 간접세 인상이 큰 폭으로 나타나면서 물가상승률은 6.0%에 육박할 전망이며 실업률은 생산활동 위축에 따른 추

(표 5) IMF 프로그램 하에서의 경제전망

(단위 : %)

구 분	'97	'98	'99	'2000	'2001	'2002
GDP 성 장 률	6.0	3.0	5.6	6.0	6.3	6.5
실 업 률	2.5	3.9	3.8	3.5	3.2	2.9
소비자물가상승률	4.3	5.0	4.6	4.1	3.7	3.3
경 상 수 지	-135	-43	-21	22	36	45
무 역 수 지	-47	39	57	98	108	110
무역외, 이전수지	-88	-82	-78	-76	-72	-65

자료 : 재정경제원

가격 인력 수요감소와 구직활동의 대폭 확대, 공공부문의 고용 여건까지도 악화되면서 실업률은 4.0% 수준에 육박(실업자수 80만명)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수출은 원화 약세의 영향과 극심한 내수위축에 따른 기업의 수출증대 노력으로 수출증가율이 약 9.0%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수입은 내수불황 심화로 수입은 0%대의 정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건설산업연구원의 98년도 경제전망에 따르면 외환위기 및 IMF구제금융도입으로 인해 재정 및 통화량 감소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내수가 크게 감소하여 98년도 경제 성장률은 2.0~2.5%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내년 중에는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의 조정에 따른 실업증대와 세율증대에 따른 소득감소,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하여 민간소비 증가율도 2.5~2.8%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긴축재정에 따른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어 예산이 확정된 SOC투자 11조2,000억원중 일부는 유보될 가능성이 높고 상업용, 공업용건축을 중심

으로 민간부문의 건설수요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2) 98년도 건설경기 전망

IMF의 구제금융 개시는 전반적으로 건설산업을 촉진시키기보다는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경상수지 적자 축소를 위한 긴축재정 요청에 따라 대형 국책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재정 긴축의 틀 내에서 불요불급으로 판단되는 사업의 연기가 예상되며, 특히 정치적 결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은 순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지자체 주도의 지역개발사업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투자와 함께 민간부문의 투자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전반적인 투자심리 위축으로 신규 건설사업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과잉, 중복투자의 억제를 유도할 것이 예상되므로 민간발주의 국내 건설수주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통화공급의 하향조정, 시중 자금사정의 경색, 금융

[표 6] 건설계약액 추이 및 전망

(단위 : 경상가격 기준 조원, %)

구 분	1996년		1997(추정)		1998(전망)	
	계약액	구성비	계약액	구성비	계약액	구성비
총계약액	66.75 (19.3)	100.0	78.37 (14.0)	100.0	70.59 (-9.9)	100.0
토 목	22.82 (32.7)	33.2	28.53 (25.0)	36.4	26.00 (-8.9)	36.8
건 축	45.93 (13.7)	66.8	49.84 (8.5)	63.6	44.60 (-10.5)	63.2
공 공	26.91 (31.6)	39.1	32.46 (20.6)	41.4	30.19 (-7.0)	42.8
민 간	41.84 (12.6)	60.9	45.92 (9.8)	58.6	40.41 (-12.0)	57.2

주 : 1. 건설계약액은 건설협회 회원들의 수주 총계임  
2.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임.

기관의 보수적 자금운용 등으로 인한 자금부족도 건설투자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물류비 부담이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원인인 만큼,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협회자료에 의하면 98년도 계약액중 공공부분이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사회간접시설 등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투자 감소가 예상되나 98년도 예산편성시 신규 물량보다 계속 공사에 우선 배정한 점을 감안하면 커다란 축소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민간부분은 민자유치사업과 민간기업의 대규모 시설 투자가 축소될 것으로 보여 98년도 전체 계약액은 97년대비 0.2%감소한 78조5,455 억원으로 전망된다.

한편, 건설산업연구원의 1998년 건설계약 전망에 의하면 1998년도 국내 건설공사의 계약실적(경상가격 기준)은 IMF구제금융도입으로 인하여 IMF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에 의한 3%이내의 경제성장률과 긴축재정을 통한 정부지출의 대폭 감소가 예상되고 긴급 통화정책에 따른 금리의 상승으로 기업의 투자 심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신규투자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9.9%감소한 70조5,900 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표 6 참조)

부문별 계약 실적은 공공 및 민간공사가 전년동기 대비 각각 7.0%와 12.0% 감소한 30조1,900억원과 40조4,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공종별 계약실적은 토목공사 8.9%, 건축공사가 10.5% 감소한 26조원과 44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 3) 98년도 주요 건자재 전망

98년도에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신규 건설투자의 감소로 인하여 대부분의 건자재의

수요가 감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업체의 부도가 올해에 이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환율 급등, 유가인상, 각종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가 잇따라 인상될 것으로 보여 일부 건자재 생산업체의 경영 부실이 예상된다.

#### (1) 레미콘

98년도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자금지원으로 인한 주요 경제정책의 변화 및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레미콘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IMF주도하에 정부의 통합재정수지를 흑자 내지 적정 수준으로 유도함에 따라 당초 정부가 추진중인 대규모 국책사업의 축소가 예상되며, 기업들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함으로써 신규투자도 큰 폭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여 98년도 레미콘출하 증가율은 약 6% 내외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건설사들의 대규모 부도사태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인한 공사중단이 예상되고 경영상태가 불안하다고 판단되는 건설업체나 중·소규모의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레미콘업체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안정성 위주의 영업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상기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자연적인 레미콘 출하 감소량 외에 추가적으로 레미콘업체들에 의한 자체적인 수급조절 물량 및 공사중단으로 인한 레미콘 감소량 등을 고려할 경우 전년동기 대비 약 10% 감소한 121,000천m<sup>3</sup>에 출하할 것으로 보인다.

(표 7) 1998년도 레미콘 수요전망

(단위 : 천m<sup>3</sup>, %)

구분	1997년도			1998년도*
	상반기	하반기 <sup>o</sup>	합계 <sup>o</sup>	
전국총계	61,370 (8.60)	73,239 (5.69)	134,609 (7.0)	121,000 (-10.1)

주 : ( )는 증감률 임. 한국레미콘공업협회

(2) 시멘트

건설산업연구원은 1998년 중 시멘트의 국내 생산능력은 한라시멘트의 신규공장 가동, 성신양회 단양공장의 설비 확충 및 기존 시설의 가동을 제고로 1997년 대비 약 4% 증가한 6,5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시멘트 수요는 건설수주액이 10%정도 감소함에 따라 1997년 대비 6.7%감소한 6,130만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7 참조)

[표 8] 1998년도 시멘트 수요전망 (단위 : 천톤)

구 분	1996년	1997년(추정)	1998년(전망)	
			전년비(%)	전년비(%)
합 계	63,555	65,700	3.3	-6.7
국내공급	60,017	62,300	3.8	-2.4
수 입	3,538	3,400	-3.9	-85.3

자료 : 건설산업연구원

(3) 골재

98년도에는 IMF 긴급구제금융 지원에 따른 경제 긴축으로 SOC등 대형국책사업의 대폭적인 축소와 회복기미를 보이던 주택경기가 또다시 침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골재수요는 97년 221,787천m<sup>3</sup> 보다 6.8% 감소한 206,621천m<sup>3</sup>로 전망된다. 비허가 비율로 보아 자체조달이 부족한 시,도는 인근 시,도에서 공급을 받아 충당을 하여야 하므로 1/4분기 허가자연시에 일시적으로 수급불안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98년 허가계획

[표 9] 골재재취 허가 및 수요실적

구 분 지 역	골재수요(A) (비율)	공 급 계 획		
		허가공급(B)	비허가공급	비율(A/B)
수 도 권	84,322 (40.8)	68,242	9,161	80.9
강 원	9,195 (4.5)	8,544	651	92.9
충 북	5,558 (2.7)	6,791	-	122
대전·충남	22,915 (11.1)	22,675	7,164	98.9
전 북	9,050 (4.3)	7,665	147	84.7
광주·전남	17,934 (8.7)	21,394	1,330	119
대구·경북	23,100 (11.2)	21,248	2,652	92.0
부산·경남	32,770 (15.8)	27,860	150	85.0
제 주	1,777 (0.9)	837	110	47.1
전국합계	206,621 (100)	185,256	21,365	89.7

자료 : 골재협회

물량이 조기 완료되어 채취공급이 되면 98년 골재수급은 원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98년도 골재수요는 수요비중이 높은 SOC 및 대형국책사업의 축소가 예상되고 주택경기의 침체도 예상되어 97년도 대비 8.4% 감소한 2억180만m<sup>3</sup>로 전망하였다.